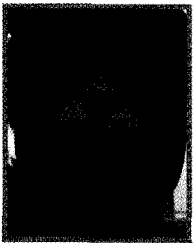


# 건축만평

## 어제와 오늘

2000~2010 | vol. 369~500



유원재 / Yoo, Won-jai  
한국예술종합학교 튜터

### 건축만평의 해학적 파워

건축은 공간 언어의 집합체이다.  
공간 언어가 정리되어 다이어그램이 되고, 이것이 옷을 입으면 스케치나 도면으로 탈바꿈을 한다.  
하나 여기엔 여유와 유머나 풍자가 없다.  
이 언어는 현학적이고 난해한 설명으로도 다 설명이 안 되는 면이 많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건축적 사고를 설명하기 어려움으로(마치 약도나 평면도를 말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처럼) 시각 언어의 도움으로 쉽게 전달할 수 있다.  
그 시각 언어 중에 하나가 만화이다.  
건축 만화의 전달력은 빠르고 감각적이고 해학이 있다.  
건축적 사고를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하기에 사람들의 본성에 호소하는 원초적 힘이 만화에는 있다고 본다.  
특히 요즈음 읽는 매체 보다는 보는 것이 호소력이 강한 시류에는 순간적으로 전체가 느껴지는 만화의 매력이다.  
심각한 토박을 상대방에게 가벼운 '편'으로 넘길 수 있는 여유도 만화의 해학적 파워이라 본다.

### 썰렁한 만화

「건축사」지로부터 처음 원고청탁을 받았을 때, 그 당시 이미 종교 관련 소식지에 5년 정도에 걸쳐 만화를 게재하고 있던 나로서는 쉽게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종교관련 만화는 종교가 소재가 되어야 하고, 건축관련 만화는 건축이 소재가 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어서 아이디어도 빈곤한데 영역제약의 한계까지 극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또한 그간 그려왔던 썰렁한 종교만화를 건축에도 반복해야 하나? 라는 우려도 있었다.  
만화의 사전적 의미는 '... 인생이나 사회를 풍자 비판하는 그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만화는 근본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려야 재미있다. 결국 누군가를 씹어대야 재미있다는 말이다. 기존의 현상에 대해 긍정적인 만화는 대개가 썰렁하다. 따라서 재미있는 만화를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종교나 건축을 비판해야하는 모순을 감내해야 한다. 이점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몽적인 태도로 만화를 그려야 하는데 그러기엔 건축에 대한 나의 지식과 통찰력이 못 미친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다. ㅠ\_ㅠ;  
내가 이렇게 긴 뉘트리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만화라는 것이 이토록 쉽지 않은 직업이니 만치 「건축사」지에서 원고료를 올려달라는 것이다. ㅋㅋ



김낙중 / Kim, Nak-jung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 건축사가 잠시라도 '피식' 웃음 짓게...

「건축사」지 500호 발간이 갖는 중요한 의미중의 하나는, 이 간행물이 근 반세기에 걸친 우리나라 건축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 왔다는 사실이다. 사관들이 충실히 적어나간 실록을 통하여 각 시대 임금님들의 행적은 물론 왕조의 흐름을 낱알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500권의 「건축사」지를 통하여 협회창립과 더불어 우리 건축계가 성장해온 과정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우연한 기회에 필자는 '석 달에 한번'이라는 바람에 별 생각 없이 만평란을 수락 했지만, 우리나라 방방곡곡 모든 건축사들이 매일 빠짐없이 받아보는 권위 있는 잡지의 한 페이지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회를 거듭 할수록 부담감이 더해 감을 느낀다. 오늘날은 물론 후대의 건축인들이 펼쳐 볼 때 고개를 가우뚱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1930년대 뉴우요커지의 옛 카툰들은 80년이 지났어도 우리를 웃게 만드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 되더라도 대다수 일거리 없어서, 또는 설계해 주고도 준공식에 초청장조차도 받지 못해 마음 상해하는 우리 건축사들을 잠시라도 '피식' 웃음 짓게 하여 위로 할 수 있다면 필자는 큰 보람을 느낄 것이다.

어쨌든 우리 건축인들의 오늘날의 활약상과 행적이 작품이든, 발언이든 「건축사」라는 실록에 차곡 차곡 백업되고 있으니 우리 모두 「건축사」지 발간 500호를 기하여 후세에 부끄럼 없는 알찬 건축인이 되기를 굳게 다짐합니다.



김진균 / Kim, Jin-kyoon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외로움을 빛다

우리는 외로운 순간을 피하기 위해 많은 것들과의 일체감을 꾀한다.

먹을 것, 볼 것, 들을 것 등은 몸과 마음의 공백을 일시적으로 유보시키는 도구들이다. 그래서 위는 먹 거리가 삼투압을 통해 세포조직과 만나는 것을 돕고, 귀는 말과 음악 등을 통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는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특히 나약한 육체는 외로움을 빌미로 무의미한 이성적 관계에도 집착한다.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 외로움과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쉽지 않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 치의 틈도 없이 외로움의 순간과 공간을 매우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랑이라는 가장 위대한 관계맺음도 매순간 서로에게 충실할 수 없고, 사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로움을 포만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더군다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탈과 상실은 또 다른 외로움과 허탈감으로 증식된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고통과 멸망콜리는 삶의 증거이니 즐겨라!"라고 말한다.

나는 외로운 순간, 글을 쓴다.

나는 글을 통해 화석처럼 굳어져 일체화 될 것 같지 않던 수많은 무의식을 부활시키고 외로운 공간을 임의로 각색한다. 이야기 안에서 외로움은 정신을 채우는 양질의 자양분이며 수많은 감동을 출산하는 자궁이 된다. 그리고 글을 통해 살려낸 수많은 기억들은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받고 새로운 정착지에 거거 할 수 있게 된다. 상실감은 깨달음으로 육체의 불꽃갈던 욕망은 나를 이해하는 지혜로 착상된다. 나는 오늘 고독에 입 맞추며 풍성한 기억을 포식하고 있다. 나는 외로움을 질료로 생각을 빚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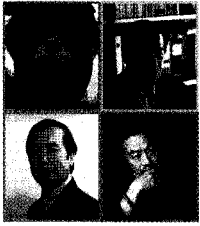


곽희수 / Kawk, Hee-soo, KIRA  
이템도시건축 대표

2000~2010

# 건축만평모음

Vol. 369~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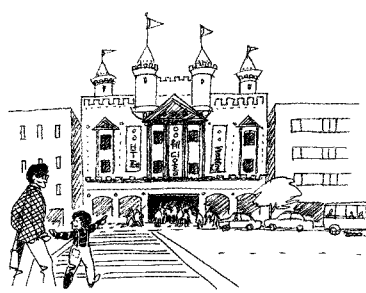
- 유원재
- 김낙중
- 김진균
- 박희수



BC 2000년경 피라미드  
14세기 클로세움  
1244년 몽상사 무라카미  
2044년 마천루

건축사 사무소 인의, 건축 연구소 인지 모르겠네.


20년 전에는 설계사무소를 흔히 건축연구소라 불렀다. 요즘이야말로 건축연구소라는 이름이 건축사 사무소 보다 시대 상형에 맞다고 본다. 불행에 프로젝트가 귀해지고 그런 가운데 훌륭한 자질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싶다. 중요한 나태보다 스펀지링 긴장이 창의력을 자극한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세기를 맞는다.



아빠! 저기는 디즈니 랜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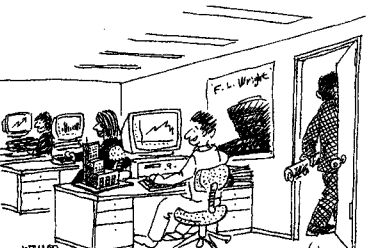
**유행병**  
요즘 시내 곳곳에 유혈 경제 생략모양을 어설픈게 흉내낸 결혼에서 장물을 볼 수 있다. 국제불명의 이것 저것을 마구 섞어 조잡하게 만든 영과 세트 같은 건물들이 어우러지고 있다. 주위 분위기는 풍광이 아닌 처 아랑곳없이 서있는 건물들로 도시는 별다른 건다. 개성은 있지만 서로 어울려지는 어떤 처럼 건물들이 서로 대조를 나누는 아름다운 도시가 그려워진다.

## 집의 크기는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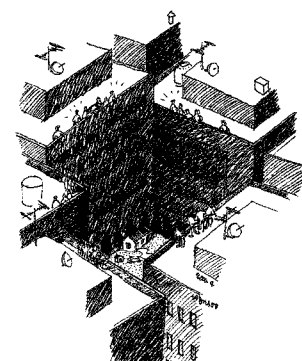
연, 앞집은 부부사를 하면 집이 커서 새 집은 한달씩만 분배!

연국의 부부가 아무의 흥행에도 비례있으면 생명을 잃고, 너무 화려해도 안거를 편안하게 하지 못한다. 우리들의 집도 이와 비슷한 점이 많다. 큰집은 사구들을 소산시켜 쾌락만이 될 때 질 수도 있고, 너무 벽에 닫힌 집은 사구들을 편안하지 못하게 한다.



소장님 의출하셨다. 인터넷 증권 사이트로 가자!

요즘을 벤처 비즈니스 중이 우리 주위를 시끄럽게 흔들어내고 있으나 설계사무소는 아직도 조용하다. CAD를 위한 컴퓨터는 작업을 하고 있고, 비싼 이것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자.



우리를 즐겁게하는 마지막 보루 야 보류?

주택가의 옛모습은 사라져가고, 건물들이 배워서 주위를 배워갑니다. 담 넘어 돌리던 앞집 벽이 찢는 소리도 귀했었습니다. 이 순간도 내일이 되면 그림은 아예 없으면...

## 베이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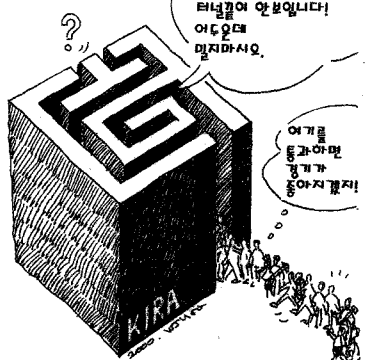
건축사의 부업(?) 집모양 개입이 어떻게 인기를 끌었니!

오랜 건축경기 침체로 많은 건축사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어떤 생활을 해야하는지라는 자제는 어떤 것일까? 저문자들이 반복하지만, 안좋은 문제이다. 하나 위기가 기회기 된다는 교훈이 건축사에게도 해당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인도 없는데 앞날을 위해 복한 건축법이나 공부해 두어야지!

각 분야에 다 필요하게 시작되었다. 이쪽 건축분야도 서로 만나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예외 건축분야도 건축사 실무 전문가, 고건축 활동조사, 환경에 건축 설계 및 건축 분야에 관련된 건축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고 있다.



타난걸어 안보입니다! 어둠에 밀려다시오.

어가를 통과하면 밀려가 돌아지 않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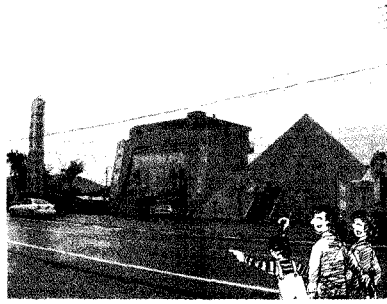
한난한 끝까지 지나야도, 관한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앞날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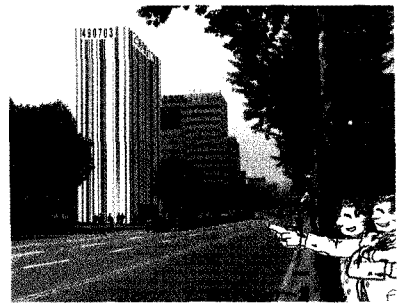
아빠가 설계한 건물 멋있다. 화장실이 어디예요?  
어... 나도 잘 못 찾았는데 ??? !!!

설계자가 자신이 설계한 건물에서 길을 잃고, 무상으로 당해보고야 장례지의 괴로움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아버지의 아쉬움을 구식구식 배어내는 엉뚱이런 설계를 하고 싶다.



저 식당에서 식사하자.  
아빠, 이집트 음식 먹는거야???

한식당의 외관이 이집트 유적 모습이다. 양주에 양명 주위에 들어선 국적 불명의 건축이화로 후회지 갈하는 요건해적 건다. 환경을 요건해적 만드는 어지러운 전황이 아니라, 지역 속에 머물린 숨은 곳 같은 집이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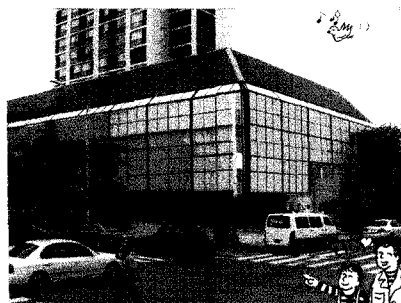
디지털 시대라서, 입면을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바-코드로 처리했지요!.....?

입면이기 그려낸 도면을 깨끗하지만 장갑잡이 시늬하다. 문명의 이기는 편리한 도구지만 우리의 감성의 세운을 빼앗아 식약하게 한다.



아빠 어떤 집이...

건축주가 구상한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구상한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구상한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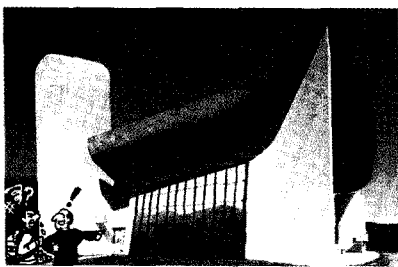
바쁜 그림 찾아내기

휴일은 무의미하게 많은 시간과 함께 무의미하게 살아야 한다. 그 동안 가장 많이 다니던 아버지가 만든 것이 어떤 집인지 알고, 이것들은 소비자의 편의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



바쁜 그림 찾아내기

휴일은 무의미하게 많은 시간과 함께 무의미하게 살아야 한다. 그 동안 가장 많이 다니던 아버지가 만든 것이 어떤 집인지 알고, 이것들은 소비자의 편의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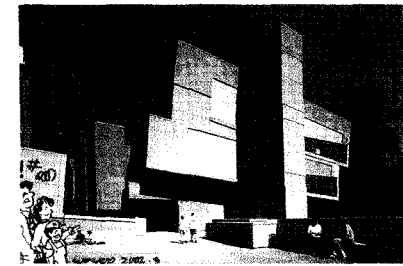
여기 학생회의 있나?  
네, 어렸고 원기가 안되는 리모텔링을 했습니다.

아빠! 학생회도 리모텔링을 했습니다. 리모텔링을 했어? 리모텔링을 했어? 리모텔링을 했어?



아빠, 저 길 본-간 찾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왜 본-간 안찾아-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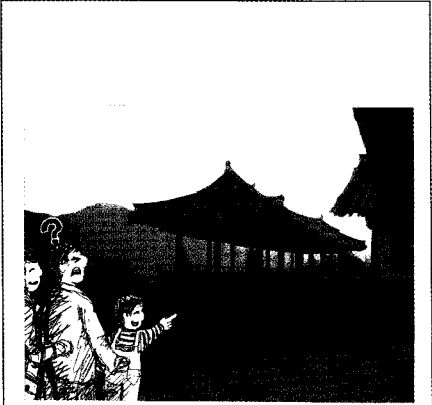
1966년에 세워진 '게이트웨이 아치'는 '미국 현대 건축의 상징'으로 불린다. 그 당시에는 '게이트웨이 아치'가 '미국 현대 건축의 상징'으로 불렸다. 그 당시에는 '게이트웨이 아치'가 '미국 현대 건축의 상징'으로 불렸다.



자 건물은 지진 때문에 기울어졌나?

해방 이후의 건물들은 세련되고 근엄함을 줄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을 추구했다.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리히트'는 '개방된 공간'을 추구했다.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리히트'는 '개방된 공간'을 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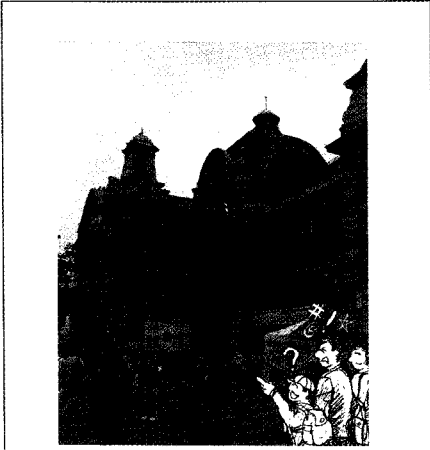
2002. 04 | vol.396



아빠, 요즘 건물도 옛날처럼 아름다워 보이게 되었나요?

4백 여년 전에 지어진 민중, 명산(명산) 건물입니다.  
사람은 지금도 사랑하고 교사가, 조상의 남과 정상이 곳곳에 스며있다.  
아니 조상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건물입니다! 오히려 쓰여지고  
그렇게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건물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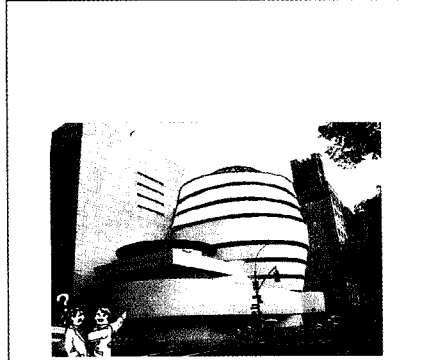
2002. 05 | vol.397



아빠, 서울의 두강(두강) 건물은 어떤 시대의 건물이라 부를까요?

어떻게 보면 서울의 두강(두강) 건물은, 어떤 이 모습, 어떤 모습, 어떤 모습의 모습  
일까요? 물어봐!  
어떻게 보면 서울의 두강(두강) 건물은, 어떤 시대의 건물이라 부를까요?  
서울의 건물은 어떤 시대의 건물이라 부를까요? 물어봐!  
어떻게 보면 서울의 두강(두강) 건물은, 어떤 시대의 건물이라 부를까요?  
어떻게 보면 서울의 두강(두강) 건물은, 어떤 시대의 건물이라 부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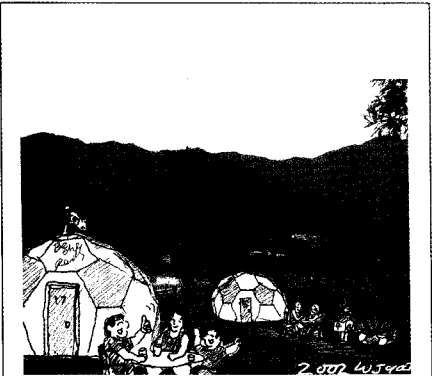
2002. 06 | vol.398



라이프의 건축(건축) 강(강)에서 무슨(무슨) 일(일)이 있었(있었)는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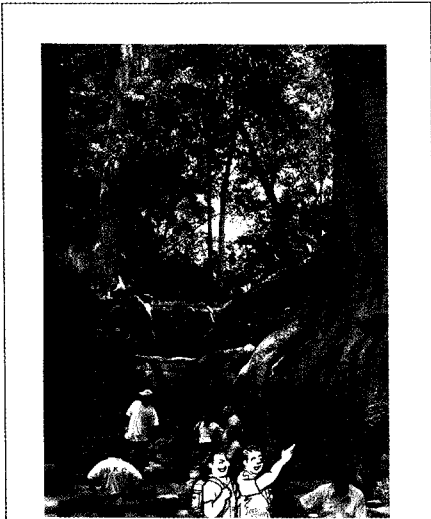
많은 건물들은 설계자의 의도를 그대로 지어낸다.  
그런 설계 의도가 인간의 몸과 주관을 담아서, 발전된(발전된) 예정과  
실현(실현)을 담아서, 그리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2002. 07 | vol.399



실제로 4강 이후로 우리(우리) 생활(생활)이 어떻게 되었(있었)는지?

2002. 08 | vol.400



이것을 건축(건축)적으로 보(보)나, 조경(조경)적으로 보(보)아야 하나?

한(한) 사람이 한(한) 사람으로 보(보)는 건축(건축)의 고(고)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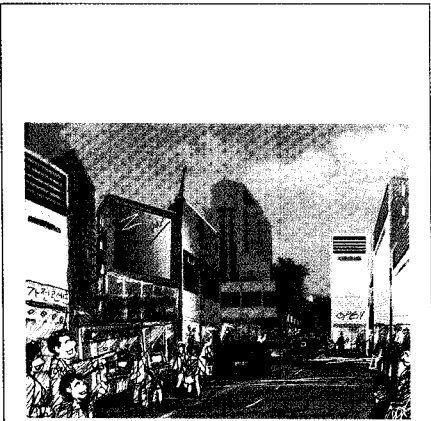
2002. 09 | vol.401



자연(자연)은 건축(건축)의 스승(스승)이다.

수(수)많은(수많은) 사람이(사람이) 보(보)는(보는) 것이다.

2002. 10 | vol.402



어(어)떤(어떤) 건물(건물)을 보(보)야 할(할)까?  
아(아)빠(아빠), 한(한)번(한번) 더(더) 보(보)고(보고) 싶(싶)어요.

2002. 11 | vol.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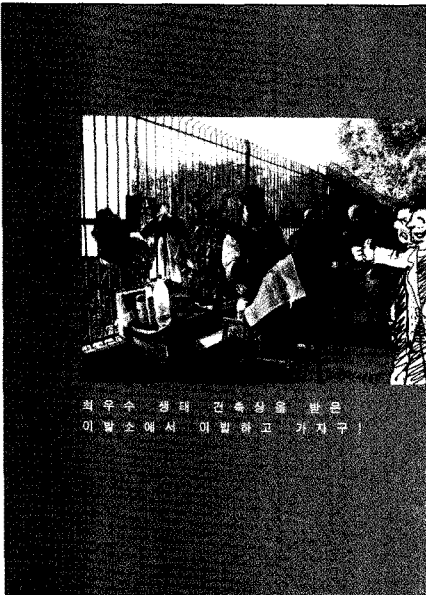
어(어)떻(어떻)게(어떻게) 지(지)어(어)야(어)야(어)하(하)는(는) 건축(건축)의(의) 고(고)민(민)이(이)라(라)고(고) 부(부)를(를)까(까)?

2002. 12 | vol.404



요(요)즘(요즘) 건물(건물)이(이) 많(많)아(아)는(는)지(지)나(나), 한(한)번(한번) 더(더) 보(보)고(보고) 싶(싶)어요(어). (건축(건축)의(의) 고(고)민(민)이(이)라(라)고(고) 부(부)를(를)까(까)?)

2003. 01 | vol.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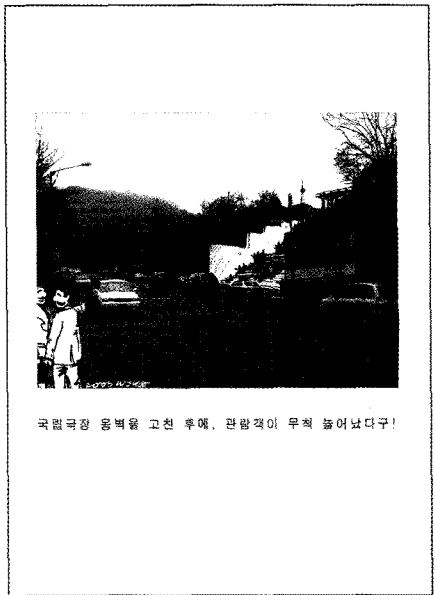
최우수 생태 건축상을 받은  
이 밭소에서 이 밭하고 가자구!

2003. 02 | vol.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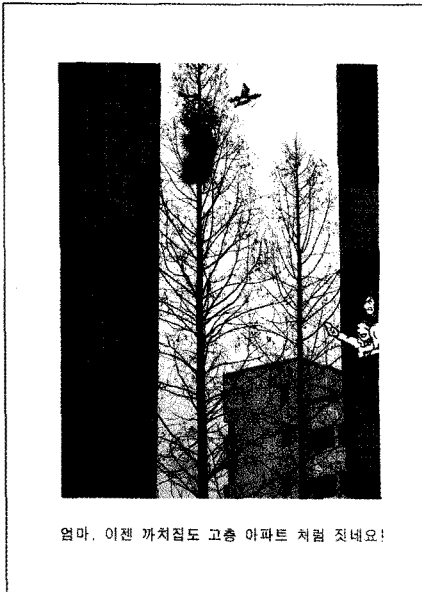
자유센터 건물도 코르부지에 설계입니까?  
-일단 Chandigarh에서 온 건축가

2003. 03 | vol.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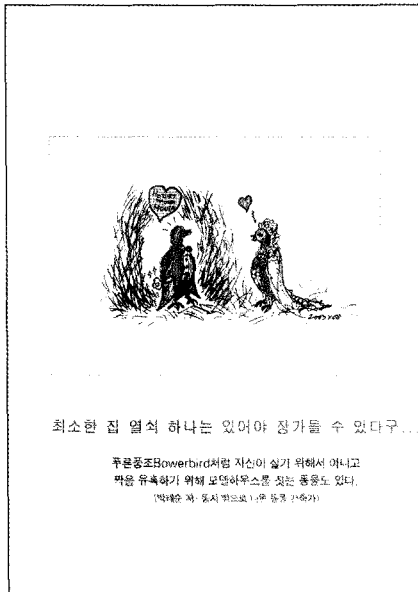
국립극장 영복을 고친 후에, 만화적이 무척 좋아났다고!

2003. 04 | vol.408



얼마, 이젠 까치집도 고층 아파트 처럼 짓네요!

2003. 05 | vol.409



최소한 집 열쇠 하나는 있어야 장가들 수 있다구...

푸른종조Bowerbird처럼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니고  
막을 유혹하기 위해 요양(아우스)을 짓는 종들도 있다.  
-[한글] 차, 도시 건축으로 (1)부 동경 건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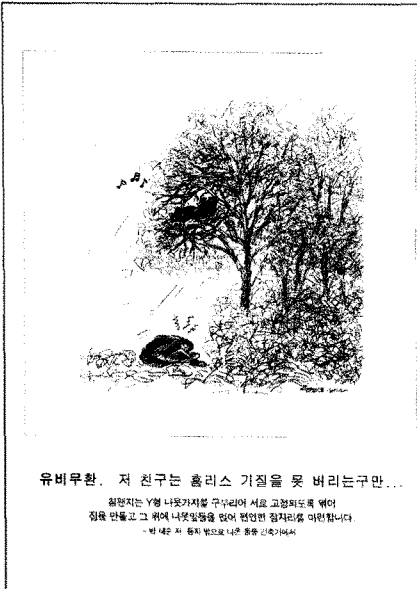
2003. 06 | vol.410



우리는 무동력 자연환경 정치를 옛날부터 쓰고있다구!

이르러야 원재하는 원기(사실)의 잘 갖추어진 영속(영속)에 살아야.  
마르게 움직이는 이를 움직이는 열이 발생하고 이 다른 공기가 위로  
올라가 등지에서 빠져나간다. 풍이 내부는 자연스런 공기(흐름)이 생기  
잡기(유입)를 통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된다  
-[한글] 차, 도시 건축으로 (1)부 동경 건축가

2003. 07 | vol.411



유비무환, 저 친구는 홀리스 기질을 못 버리는구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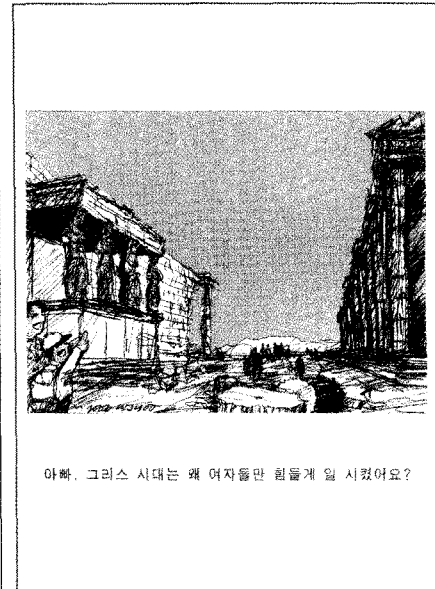
활판지는 Y형 나뭇가지를 구멍(리)에 서로 고정되도록 하여  
집을 만들고 그 위에 나뭇잎들을 얹어 천연의 집자리로 마련합니다.  
-[한글] 차, 도시 건축으로 (1)부 동경 건축가

2003. 08 | vol.412



여보, 전원주택에선 TV프로 대신, TV에 반사된  
경치를 감상합니다!

2003. 09 | vol.413



아빠, 그리스 시대는 왜 여자들만 힘들게 일 시켰어요?

2003. 10 | vol.414



장례식장을 어떻게 설계할까?  
유치원, 초등학교, 결혼식장처럼 비슷하게 하지!

건축가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공간을 고민해야 합니다.

2003. 11 | vol.415



아빠, 저 호랑이에 앉아서 먹을까요!  
디자인은 모든 이용자들의 물리적 감각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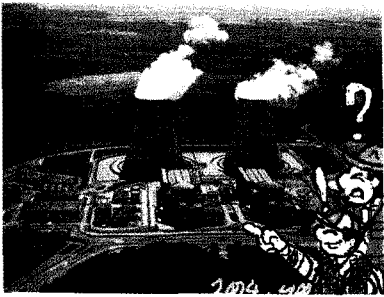
2003. 12 | vol.416



아빠, 슈퍼맨이 사람들을 구출하네요!

중립적인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을 위한  
최선에 있을 때 가능하며, 새로운 공간을 위한 디자인이다.

2004. 01 | vol.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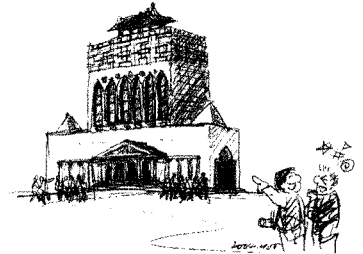
아빠, 저건 청성대 모양을 배껴서 아닌가요?

2004. 02 | vol.418



세계건축가연맹 (UIA) 파티에는  
각국 전통 건축의 모자를 씌시다!

2004. 03 | vol.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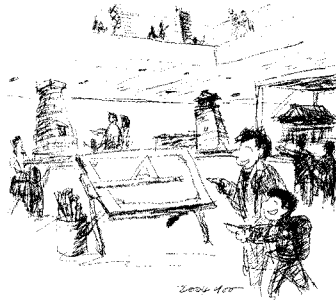
다국적 기업 사옥이라 각국의 유명 건물을  
섞어 팔롱으로 설계했지!

2004. 04 | vol.420



남편은 요즘 하이테크 건축에 푹 빠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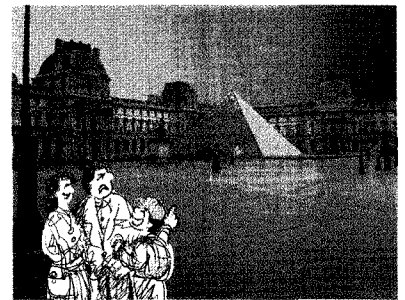
2004. 05 | vol.421



아빠, 이 책대기는 뭐예요?  
음, 옛날에는 컴퓨터 대신 이것으로 도면을 그렸지...

건축사사무소

2004. 06 | vol.422



아빠, 저 피라미드도 콩코드 광장의  
오벨리스크처럼 이집트에서 갖다 놓았나요?

- 무브로 박물관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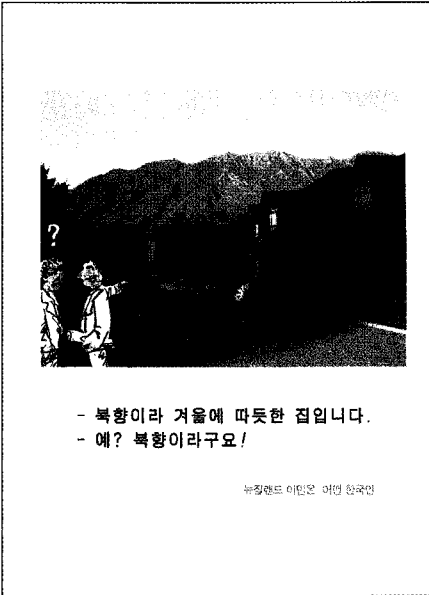


2004. 07 | vol.423



건축주의 취향을 분석한 설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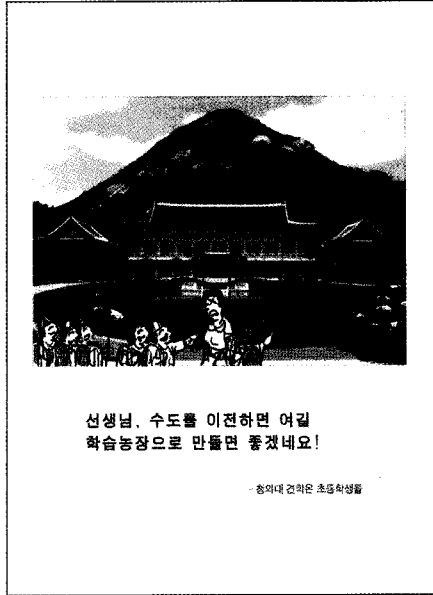
2004. 08 | vol.424



- 북향이러 겨울에 따뜻한 집입니다.  
- 예? 북향이라구요!

뉴질랜드 이민인 여영 한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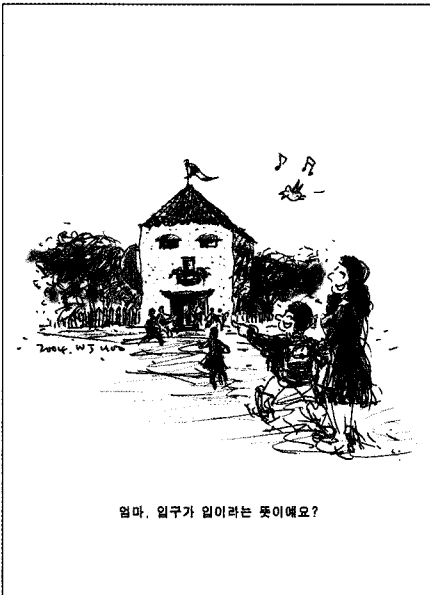
2004. 09 | vol.425



선생님, 수도를 이전하면 여길  
학습농장으로 만들면 좋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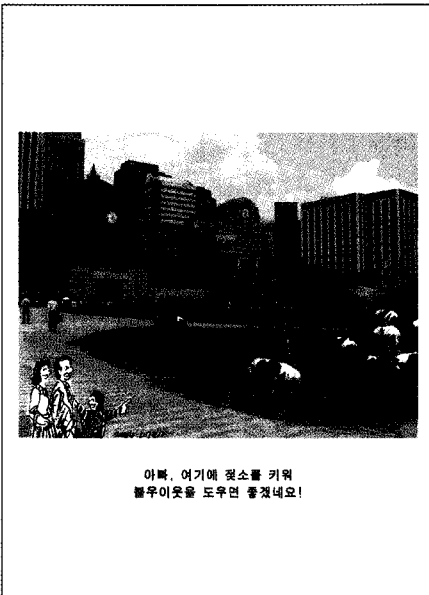
-총의대 권혁은 초등학생들

2004. 10 | vol.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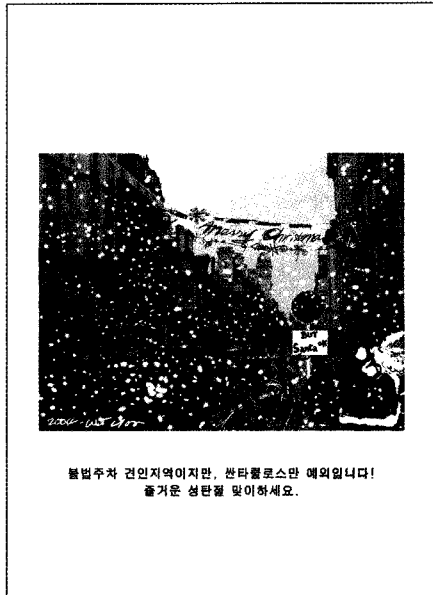
엄마, 입구가 입이라는 뜻이에요?

2004. 11 | vol.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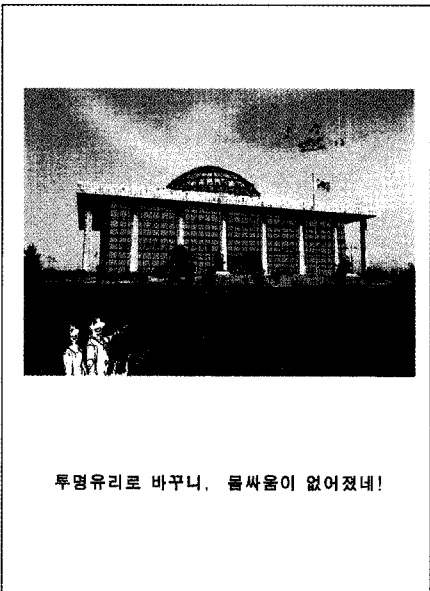
아빠, 여기에 꽃소를 키워  
불우이웃을 도우면 좋겠네요!

2004. 12 | vol.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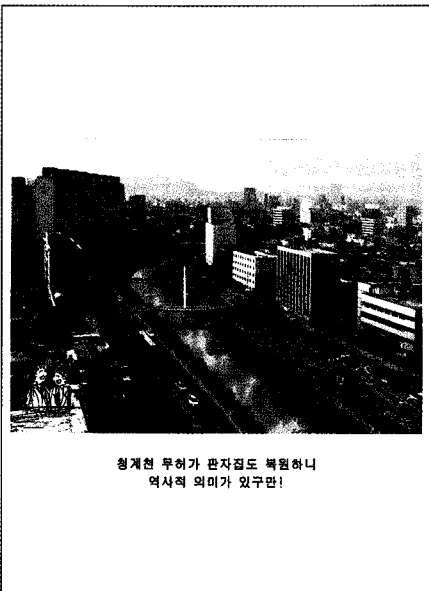
불법주차 권인지역이지만, 썬타클로스만 예외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맞이하세요.

2005. 01 | vol.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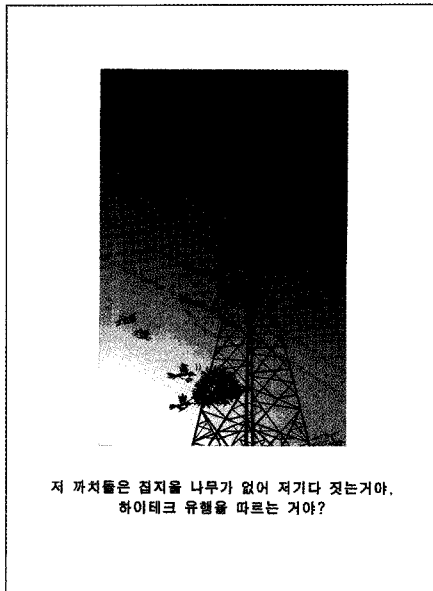
투명유리로 바꾸니, 뽕싸움이 없어졌네!

2005. 02 | vol.430



청계천 무허가 판자집도 복원하니  
역사적 의미가 있구만!

2005. 03 | vol.431



저 까치들은 집지를 나무가 없어 저기다 짓는거야,  
하이테크 유행을 따르는 거야?

2005. 04 | vol.432



하이 서울 페스티벌 홍보를 위해  
후원된 장소들을 출연시켰구먼 !

2005. 05 | vol.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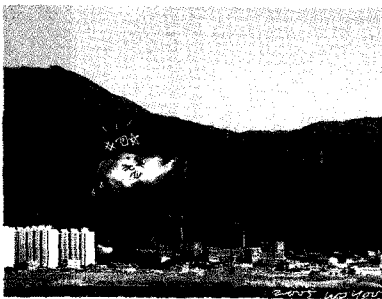
아빠! 스카이다이 연이 전깃줄에 걸렸어요!

2005. 06 | vol.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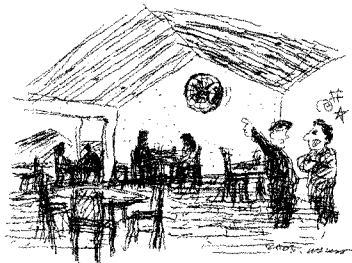
노동선 오페라 하우스 당선작이 새로운 서울의  
상징이 되겠는데 ! ... ???

2005. 07 | vol.435



구룡도 넘기 힘든 고압선이어!  
420KV, 500KV, 765KV

2005. 08 | vol.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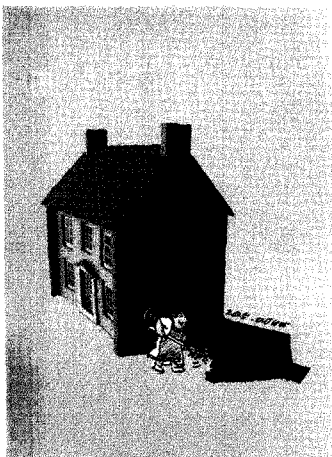
우리 카페 환풍기를  
친환경적 다람쥐 쳇바퀴로 바꿨네!

2005. 09 | vol.437



우리도 구정을 대신 문화적으로  
몰 마시구 싶다구. 구구구구...

2005. 10 | vol.438



빛자루로 그림자를 지워낼 수 있다면... ?

2005. 11 | vol.439



아빠, 지붕이 포퓰해서 잠자기 힘들겠네요.

2006. 01 | vol.441



아빠, 신년 맞아 예어 쓰가 재밌네요.

2006. 02 | vol.442



2006. 02

아빠, 경복궁은 돌기세포 없이도 복원이 되나요?

2006. 03 | vol.443



야! 신난다. 태권V다!

2006. 04 | vol.444



프랭크 게리씨 방이 지저분한데, 아! 난 쓰레기 통에서 IDEA가...

2006. 05 | vol.445



우리 고건축에는 옛부터 해체주의가 있었군!

2006. 06 | vol.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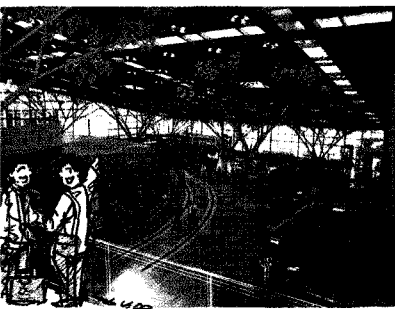
북카페 설계로 이게 최고 아십니까?

2006. 07 | vol.447



대디, 잔디에 언제 붉은 카펫을 깔았어요?

2006. 08 | vol.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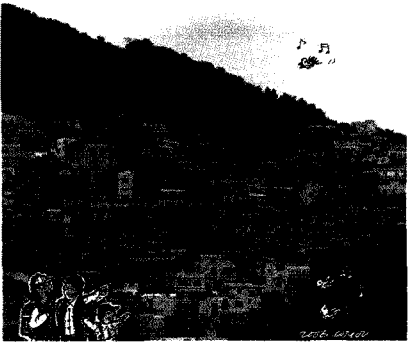
저 기둥은 조경면적으로 계산해도 되나?

2006. 09 | vol.449



아빠가 설계한 건물 구경시켜줄게...

2006. 10 | vol.450



야, 부산에 이런 데가 있대... 꼭 유럽 같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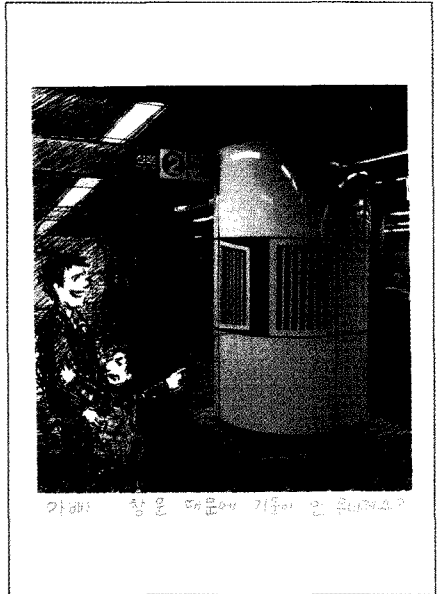
2006. 11 | vol.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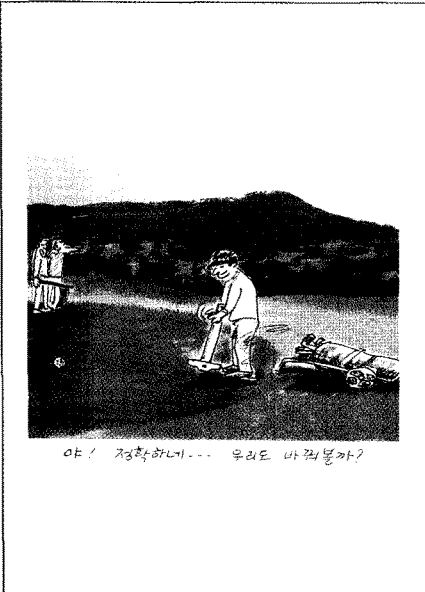
2007. 01 | vol.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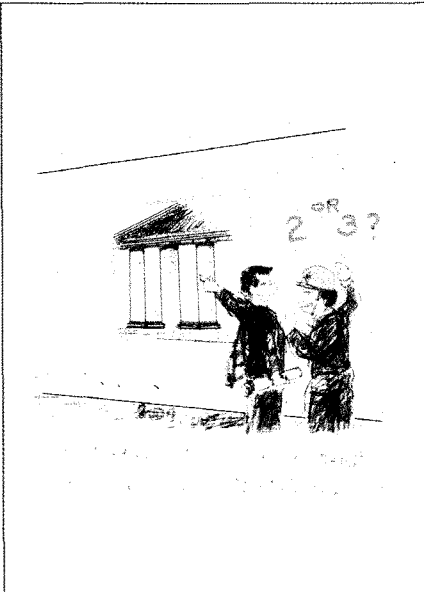
2007. 02 | vol.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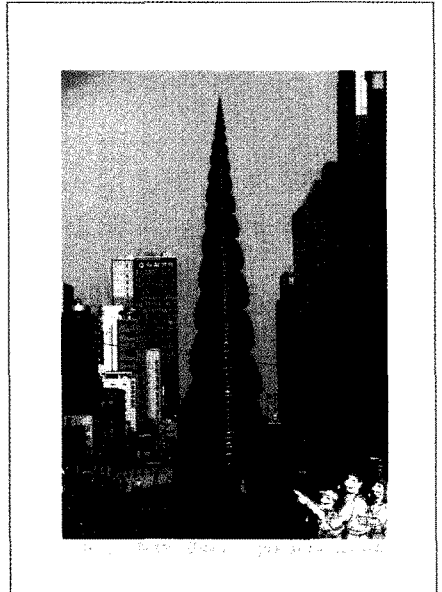
2007. 03 | vol.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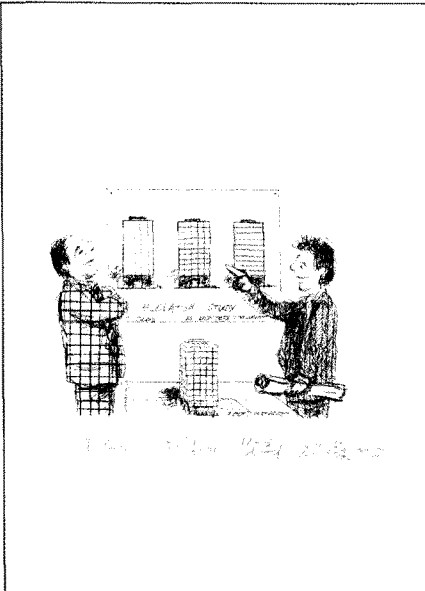
2007. 04 | vol.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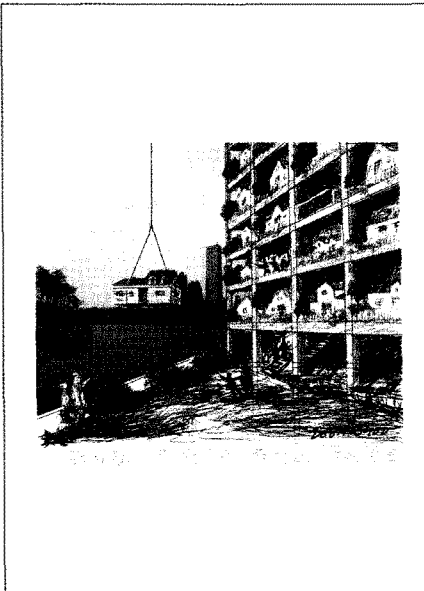
2007. 05 | vol.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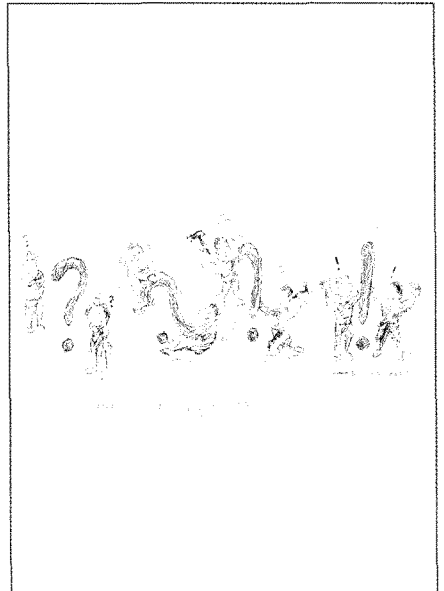
2007. 06 | vol.458



2007. 07 | vol.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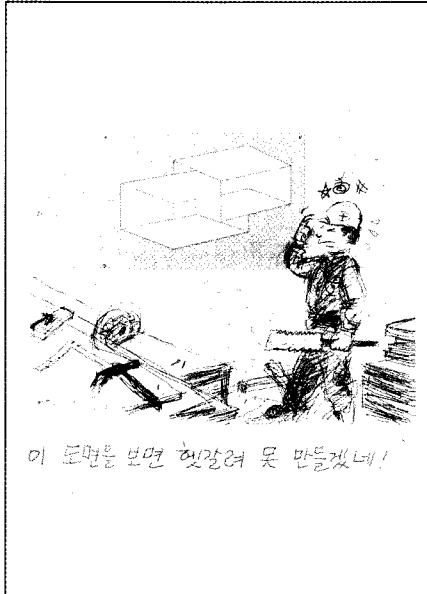
2007. 08 | vol.460



2007. 09 | vol.461



2007. 10 | vol.462



2007. 11 | vol.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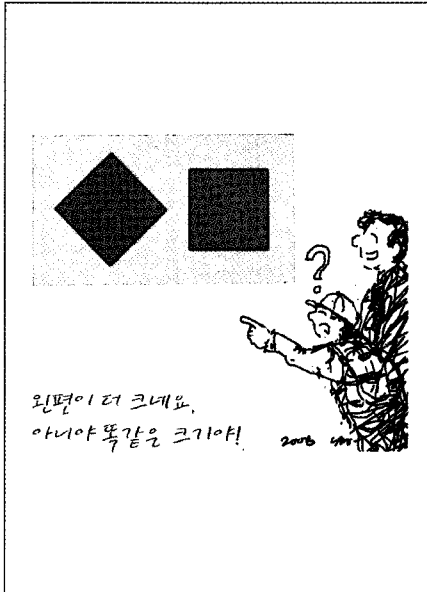


저 피아노는 발로 쳐도 고장 안나요?

2007. 12 | vol.464



2008. 01 | vol.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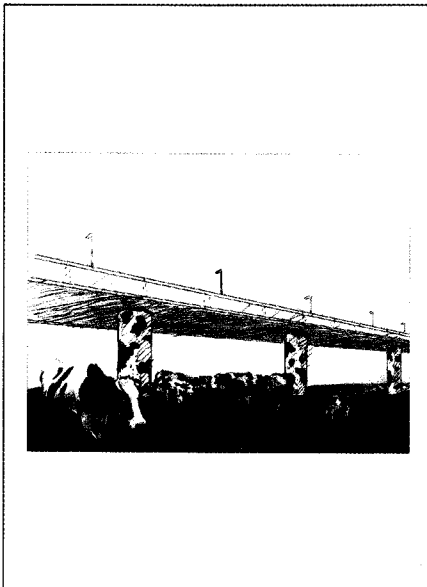
2008. 02 | vol.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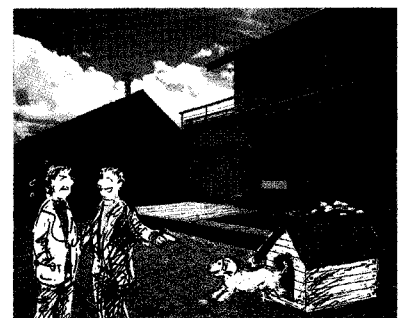
2008. 03 | vol.467



2008. 04 | vol.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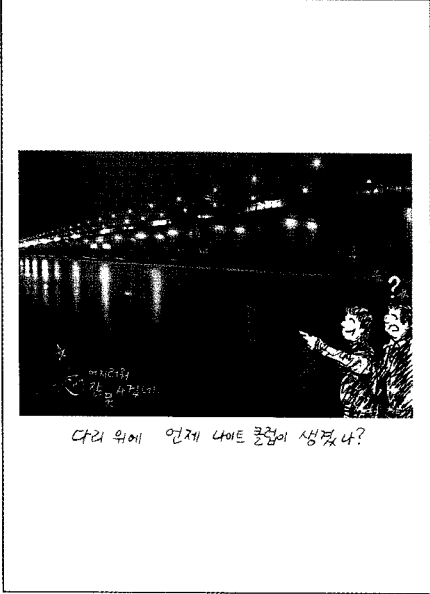


2008. 05 | vol.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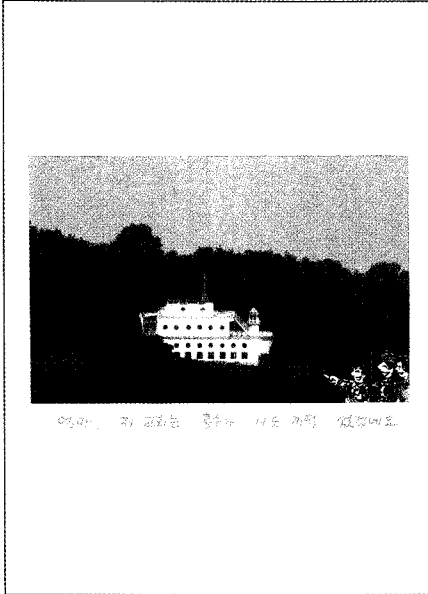


자네가 선계란 짐보따, 개집이 더 예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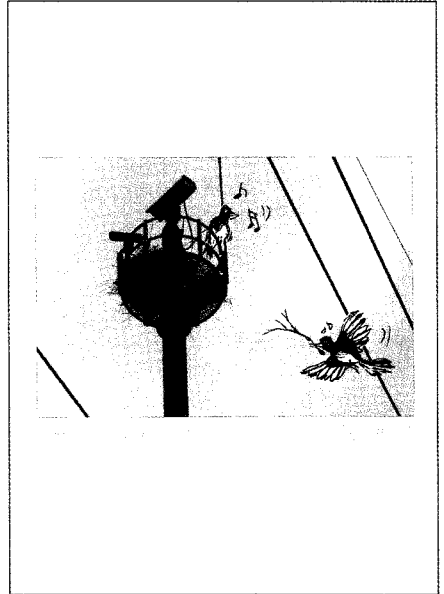
2008. 06 | vol.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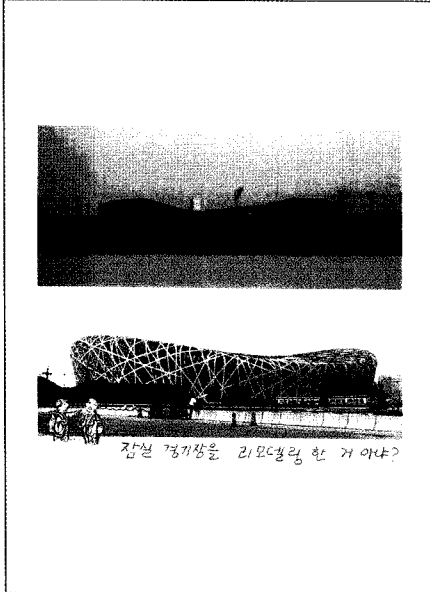
2008. 07 | vol.471



2008. 08 | vol.472



2008. 09 | vol.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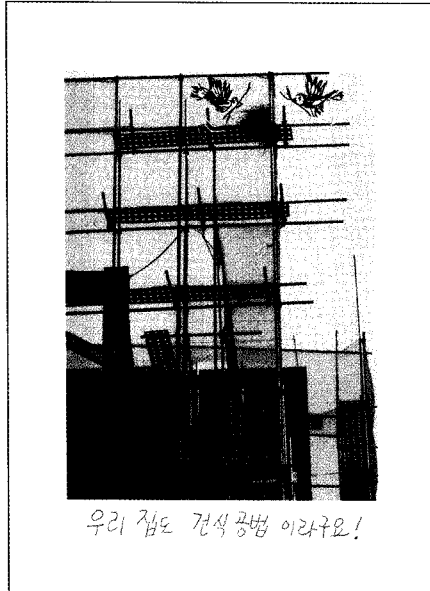
2008. 10 | vol.474



2008. 11 | vol.475



2008. 12 | vol.476



2009. 01 | vol.477



2009. 02 | vol.478

